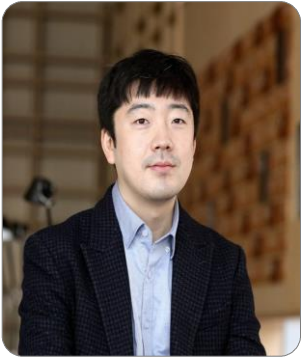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감염병 월간 소식 Vol.6(10월호)

올 겨울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유행, 이렇게 대비하세요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2022년 두번째 대유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오미크론 대유행과 BA.5 재유행 등 큰 두번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남긴 유행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60% 가까이가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였습니다. 9월 발표된 전국민 항체조사 결과를 보면 10세 미만 아동은 80%, 10-19세 청소년은 70%정도가 감염되어 면역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율도 매우 높고, 경구용 치료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감염으로 복합면역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 입국자 검역 정책 등의 큰 폭의 완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도 완전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번의 코로나19 재유행이 반복될 수 있고 동절기에는 인플루엔자 발생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지만 단순히 독한 감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남겨왔습니다. 단지 매년 유행하다보니 그 피해가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지난 2년 간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인플루엔자가 거의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보통 12-1월 사이 인플루엔자 A의 유행이 있고, 3-5월 사이 인플루엔자 B의 유행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다음 코로나19 재유행은 올해 11월과 내년 3월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인플루엔자의 유행시기와 다음 재유행시기는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실, 의료기관, 학교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목아픔, 발열, 몸살 증상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도 이 두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님, 교육 현장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급 운영 시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치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를 하게 되면 쉽게 전파가 일어나게 되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아프면 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더욱 건강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